

순천시, 스마트농업 도입 청년정책 지원 나섰다

ICT 활용 스마트농업 확대·발굴 전문 인력육성 위한 기반 마련 미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도

순천시가 농업정책 활성화를 위한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을 선도해 과수·채소·축산 등 부분에 스마트농업 도입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일 순천시에 따르면 최근 △순천형 스마트농업 확대·발굴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육성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농업 모델 발굴 △미래 기후변화 대응력 강화 등 청년이 돌아오는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순천시는 스마트농업 확대를 통해 미래에 발맞춘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스마트팜 기초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스마트농업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전문가 자문, 청년

농업인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국내외 스마트농업의 실태를 분석, 순천시에 적합한 스마트농업을 발굴해 미래 청년농의 교육 장소, 작물 선정, 농산물 판로를 개척한다.

농식품부 주관 '2024년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모 확정 시 5ha 이상 스마트팜 임대 단지를 조성하고 청년농업인들이 농장을 경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23년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을 위해 올 상반기 8억6000만원을 투입해 0.4ha 면적의 스마트온실을 구축한다.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3년간 농장 운영 기회를 제공하고 경영·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컨설팅 등을 시행한다.

'2023년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 국비 등 6억원을 확보했다. 순천대 첨단농업 기술 교육 기반을 구축해 농업 혁신을 선도할 미래 청년농업인을 육성한다.

순천시는 아열대 작목을 도입해 전국



순천시 원예과학관에 조성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ICT시설.

순천시 제공

아열대과수 시장 선점에 나선다.

대규모 단지가 어려운 아열대품목 육성지원을 위한 생산시설·장비를 지원하고 농가의 생육관리를 위한 재배기술 개발·보급에 나선다.

최근 이상기후로 꿀벌 사라짐 현상 증가에 따라 벌통 내부환경 모니터링과 온·습도를 조절하는 디지털 센서를 설치해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양봉농가의 봉군 관리 노동력 절감에 기여할 예정이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농업·농촌 혁신의 주역인 청년농업인은 스마트농업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며 "지원 체계를 마련해 농업경영 부담을 줄이고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227회 임시회...27개 안건 처리 여수시의회, 29일까지

여수시의회(의장 김영규)가 21일부터 제227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시정 질문답변 등 안건 처리에 나선다.

20일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임시회기는 29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각종 조례안, 동의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22일은 안건 처리를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가 열리며 27-28일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펼친다.

의회가 처리할 주요 안건은 △정부의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제3자 변제 해법' 철회 촉구 건의안 △여수시 농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여수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여수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이다.

여수=이경기 기자

'마을 세무사' 상담 무료 운영 보성군, 주민 세금구제 지원

보성군은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마을 세무사'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마을 세무사'는 평소 경제적인 이유로 영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취약계층 등 주민들이 무료로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마을 세무사 연락처를 통해 상담하면 된다.

보성군은 마을 세무사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SNS를 비롯해 홍보물 제작 배포·현수막 게시 등을 통한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조례·결의안 등 33건 의결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의장 정병회)가 20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3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7일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순천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의회운영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의회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문화경제위원회가 심사한 △순천시 탄소인자 예산제 운영 조례안 △순천시 전기자전거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대안 교육 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을 원안 가결 △순천만잡월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심사한 △순천 소형 경전철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천시 절수설비 등 설치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원안 가결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 선정 여수시, 국토부 공모

여수시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주관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드론실증도시 공모사업'은 시군 특성에 맞는 산업용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국비를 지원받아 연구 및 실증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는 배송취약지인 섬 지역 물류편의를 제공하고 드론 조기 상용화를 위해 섬과 육지를 잇는 순환형 드론배송 서비스인 '바라가-도(鳥)' 추진에 나선다.

사업기간은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로 국비 7억원을 포함, 11억원이 투입되며 해양드론기술(주), 무지개 연구소, 영국의 UAM을 선도하는 전문회사로 여수에 본사를 둔 스키아포츠-k가 참여한다.

'바라가-도(鳥)'는 화정면 개도 내 2026년 세계섬박람회 지원 시설에 종합 드론관제시스템, 드론 정비소, 물류보관소 등을 갖춘 물류거점을 두고 국동 수변공원, 남면 금오도, 돌산읍 송도의 물류분소에 최대 8kg 이하 의약품, 특산품 등을 배송하는 서비스다. 여수=이경기 기자

자살 고위험 3~6월 집중관리 구례군, 안전망·인프라 구축

구례군은 자살률 증가에 따라 3월~6월 집중관리 기간으로 정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자살 위험이 있는 주민의 생명 보호를 위해 사회적 안전망 형성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의료기관 9개소와 '동네의원 마음이음' △약국 11개소와 '생명사랑약국' △번개탄 판매업소 20개소와 '생명사랑 실천가게' △구례병원 응급실과 '생명 이-음' 사업 협약을 맺어 자살 시도자와 위기자를 발견하고 전문기관 상담 및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자살 예방 마을 환경 조성을 위해 광의면 18개 마을 이장과 협약을 맺어 자살 예방 생명지킴이 교육 수료 후 자살 위기자를 발굴·연계하고 주 1회 마을방송으로 '생명사랑 로고송'을 송출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여수시,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점검

여수시가 21~23일 학교 매점, 문방구, 분식점, 편의점 등 13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여수시 제공

4년만의 광양매화축제...역대 최대 122만명 발길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역대 최대 상춘객을 불러 모으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광양시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간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가 누적 122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으며 대한민국 첫 봄꽃 축제의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고 20일 밝혔다.

광양, 구례, 하동, 곡성 등 섬진강권 4개 지자체는 지난 10일 개막식에 모여 '섬진강관광시대 원년'을 선포했다. 광양매화축제의 의미가 섬진강권역으로 확장하는 순간이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서동용 국회의원과 정인화 광양시장 등 섬진강권 4개 지자체장, 시·군 의장, 내빈 등 200여 명이 개막식 및 선포식을 직접 주도해 의미가 더해졌다.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4년 만의 재회'를 주제로 '광양은 봄, 다시 만나는 매화'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졌다. 소규모, 오픈형, 청정 등 엔데믹 시대 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유료체험존과 유료주차장 운영 등 수익 창출형 축제로 전환하고 선진국 축제 경영 방식인 스폰서십을 최초 도입해 축

제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등 다각적 변화 시도가 돋보이기도 했다.

스폰서십을 활용한 '황금 매화 GET(갯)'은 시에서 사용한 3만 원 이상 영수증에 500만 원 상당 황금 매화 등의 경품을 주는 빅 이벤트로 관심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기를 이끌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4년 만에 열린 제22회 광양매화축제는 축제 기간 내 꽃의 절정을 보여줬다"며 "트렌드를 반영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한 축제로 관광객을 맞이했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

장흥군 '100세 건강시대' 맞춤형 보건의료추진

장흥군이 10대 중점 협력사업 중 보건의료를 선정해 생애 전주기 맞춤형 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흥군은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보건소 기능을 회복하고 100세 시대를 대비한 건강정책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민간 건강인프라 확충을 위해 푸른장흥건강대학 19기를 운영하고 있다. 푸른

장흥건강대학은 지역 대표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이다. 경로당 운동지도자 40명은 경로당 88개소에서 지역사회 건강매니저로 활동하게 된다.

장흥군은 청년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한다. 직장인 건강일터프로그램, 탐진강 걷기 프로그램 추진을 통한 자세교정, 비만예방 등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전문 흡연 예방 교육을

실시해 흡연 성공률을 향상할 방침이다.

영·유아 건강한 삶을 위해 저출산 극복에도 노력한다. 영양, 금연, 구강 관련 인형극, 건강한 식생활 형성을 위한 요리실습, 우드랜드 등 지역 인프라를 활용한 아토피사업, 예방접종사업 등을 추진한다.

복지관 장애인 대상자별 건강보건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 치매환자와 그 가족까지 안심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치매 사업도 확대 추진한다.

장흥=김전환 기자